

#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역설적 제언

A Paradoxical Proposal for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조 규 남

· 서울 남가좌 교회 목사, 크리스찬 포스트 편집인

우리의 기쁨 되시며 참소망 되시는 주님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심판자로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인내로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 한국인 특유의 신앙적 끈기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민족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지닌 민족이라 말할 수가 있겠다. 그 수많은 외적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오직 미래지향적 소망에의 인내와 끈기가 우리 민족의 정신바탕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장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한다면 미래와 현실(또는 과거와 현실)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현실의 삶이 지니는 의미를 무시한 채 미래의 이상세계만을 그리며 체념적 운명론에 빠져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 독립의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방인에 의해 침략당하고 속국되어 지배만

당한 것처럼 해방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남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굴욕적 현실에 처하고 말았다는 논리까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심할 경우에는 성서해석의 문제로까지 비약하게 돼, 교회일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제안이 오히려 교회분열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발전을 위해 아무리 선한 목적과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일단 전통적 기 존 질서를 고집(?)하는 이른바 정통교회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고 엉뚱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다 신중하고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의 개선책에 대해 신성한 충격의 ‘개혁의지’를 비난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개혁의지가 한국교회 안에 온전히 정립되고 정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언을 하게 됨을, 현재

고계 일각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movement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언급하며 주장하고 있는 고계 내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오해없이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제언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 제시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함에서이다.

### 1.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금세기 중반 이후에 일반대중들 사이에서나 매스컴에서도 세계관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몇몇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양승훈). / 세계관이란 우리 세계(세상)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지하는 바 일련의 전제들(혹은 가정들)이다(제임스 사이어). /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중심한 진리에 대한 반성으로 심오해진 '체계화된 지혜'로서 이해한다(로버트 논슨). / 세계관이란 단순한 삶의 이상이 아니다. 세계관이란 무엇보다도 지속되는 삶을 위한 이상인 것이다. 사실상 한 개인 또는 한 민족을 특별한 생활방식으로 이끌지 못하는 삶의 이상이나 세계관은 바른 세계관이 될 수 없다. 세계관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변세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세계관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즉 가장 가치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해낸다. 따라서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며, 그 모델은 세상에 있는 그 추종자들을 인도한다. 세계관은 세계가 마땅히 되어야 할 미래상을 규정짓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추종자들의 행실이 마땅히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충고한다. 그러나 세계관은 문화관과 마찬가지로 일개개인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다(브라이언 왈쉬, 리차드 미들튼).

### 2. 기독교 세계관의 한국적 상황과 그 문제점

이미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은 오늘의 기독교 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의 제안이므로, 이것을 다시 재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하는 듯 보이기에 아주 어렵다. 더우기 복음

주의 노선에서 선각자적 양심과 사명의식으로 한국 기독교를 이끌고 가는 훌륭한 분들이 일선에 서서 이 세계관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논평하기가 심히 거북하다. 또한 이 세계관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겨우 한국교회 안에 눈을 뜨게 하기 시작하고 있는 터라 채 자리잡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닌가 하고 무척 조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헤겔의 논리에서처럼 반(反)이 아닌, 반을 극복하기 위한 합(合)이 되고자 함을 밝히고 싶다. 또한 여기에서는 세계관에 대한 여러 견해 중, 특히 크게 문제시되는 것들만을 증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이원론의 문제 :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하 '세계관')의 출발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이원론'의 전적 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한국교회는 한국인의 독특한 종교성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야기된다. 우리의 생활방식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성(聖)과 속(俗)을 지나치게 분리하여 이 양자 사이에서 오는 모순과 갈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원론으로 인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것을 단지 자신들의 개인 생활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외부의 문화와 점점 더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문화창달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만다. 또한 역사적 인물들로 거슬러 올라가 영혼과 육체를 현저히 구분짓는 플라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신학을 정립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그리고 기독교의 3대 교전 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 켐피스의 사상을 극단적인 금욕적 이원론이라고 단정한다. 교회의 이와같은 이원론(성과 속, 영혼과 육체, 영원과 시간, 자연과 은총 등의)은 세속주의가 서구문화의 지도적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여 결국 근대 세속주의를 낳았으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나 생활방식에서 이러한 비성경적인 이원론의 해로운 영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왈쉬, 미들튼).

그러나 정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이원론적 논리가 기독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비성경적인 논리인가? 또한 토마스 아 켐피스의 경건

성의 훈련을 극단적인 금욕적 이원론이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아 일생을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한 신을 다짐한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단 말인가.... 자유와 필연성의 관계에서 이원론을 전개한 어거스틴의 '명상적인 삶(vita contemplativa)'과 '활동적인 삶(vita activa)' 사이의 구분에서 그가 전자의 우월성을 말한 것이 잘못된 이원론이라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딤후 4:8) 말한 성서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성경적 기독교(기독교 세계관)를 애써 통속적 기독교(일반적 세계관)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 자체가 또 하나의 이원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연유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한 마디로 일축하여 반박해버리는 '흑백논리'에의 부정은 우리가 새삼 새로운 각도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생각해보라! 흑과 백의 분리는 그 어떤 면에서든지 당연한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편이 흑이라고 해서 저 편이 백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이 흑이기 때문에 이 편에 부족한 부분의 백을 저 편에서 취하기 위해 저 편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논리'는 생각지 못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하여 '흑백논리'를 부정하려 드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분명한 한계의 선택이 요구되기도 한다. 어찌 흑과 백의 분명한 구분이 없이 회색과 같은 이상적 배합색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어차피 출발은 흑과 백의 어느 한 편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은 없기 때문이다.

(2) 성서해석의 문제 : 세계관에서 보다 심각성을 초래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일반적 성서해석의 견해를 그야말로 세상을 뒤엎듯(upside-down) 뒤엎는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36-41절의 본문 내용 중에서 누가 데려 감을 당하고 누가 버림을 당하는가? 라고 묻고는, 노아홍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데려감을 당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라고 답한다. 이유는, 그동안 성경적 미래관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것에 있음을 알기보다는 우리를 피조세계로부터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종말론에 더 심취해 있던 관계로 우리의 정신이 세상을 배척(a

world-fighting mentality)하도록 만든 때문이라고 한다(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또한 벰후 3:10, 12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된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은 그저 구원받은 사람뿐이며 그들이 새하늘과 새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지독히 반성경적이며 왜곡된 성서관으로서 엄청난 피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왔을 뿐이고, 실상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란 가치관과 사탄적인 요소뿐이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한다(송인규,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고전 3:12-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약을 파기한 불신자들인 예술가, 과학자, 음악가들은 그들 마음의 강박함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이나, 그들 손에 의해 된(그것들이 참된 예술, 참된 과학, 참된 음악인 한에 있어) 작품들은 영원토록 구원되어 영원히 새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즐겨질 것이다(F.N. Lee)라고 덧붙인다.

자, 이상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성서해석의 오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가? 지금까지의 교회는 성서해석에 있어 큰 잘못을 범해오고 있었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위와 같이 성서를 해석한 그들이 오히려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 하여 우리 손에 접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주석책들이 한결같이 교회의 전통적 성서해석을 말해주고 있다. 도대체 위에서 영원히 새땅에까지 남게 될 '참된 예술, 과학, 음악'의 그 참되다는 것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또 인류역사에서 오래도록 기림을 받는 위대한 예술품들은 그 어느 것이건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가의 피와 땀이 얼룩진 '흔'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대한 예술품이든지 그것의 작자를 아는 한, 그 예술품과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가를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성서해석의 문제에서는, 예술가는 지옥에 던져지더라도 그 예술품만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즐겨질 것이라고 따로 분리하여 '이원론'을 내세우는가.... 이는 참으로 이율배반적 어불성설이다. 하늘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때, 심판의 불이 나타나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때,

불신자들인 예술가의 욕이 망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혼적 노력의 결과(예술) 역시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질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영의 존재들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땅 위를 거닐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다 할지나 마귀 자녀의 혼이 깃든 예술품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적 헌물 외에는 그 아무 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분명히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관점의 기발한 성서해석은 얼핏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어낸 고리와 같아 이후로도 한국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성서해석의 원인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원론에 합리적 성서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인상이 짙을 뿐이다.

(3) 교회와의 단절 문제 : 지금까지 교회 밖의 선교단체들이 교회와의 연계성을 위한 시도의 접촉에 번번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사역에 있어 그 독특성과 역할 분담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혼란만 빚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었다. 교회와 선교단체(교회 밖)를 수학에서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비교한다면, 부분적 기능을 맡고 있는 필요조건인 선교단체가 전체적 기능을 맡고 있는 충분조건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에 예측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호보완 관계에서의 기능적 역할과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의 적이 되면 안된다. 만일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외쳐야 한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결코 다윗왕의 궁정 밖에 있지 않았다. 자신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회개치 아니하고 뻔뻔히 왕궁 안에 있는 그 다윗왕 앞에 결코 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왕을 죄악으로 더럽혀진 현장의 왕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어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그 안에 찾아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또 설령 다윗을 밖으로 불러낸다 할지라도 자신의 회개치 않은 죄악 속에 파묻혀 있

는 그가 궁궐 밖으로 나올 리도 만무하다. 이와 같이 교회 밖에서의 교회를 향한 외침은 힘이 없고 호소력과 설득력이 없다. 공허한 외침으로 허공만을 칠 뿐이다. 더우기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책망의 소리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죄로 물든 도시로부터 광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엔 매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의 누더기를 걸치는 청빈의 삶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도의 마더 테레사에게 무언의 감동을 받고, 그의 겸손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이러한 때문이다. 그런데 선교단체가 자신의 보존유지를 위해 교회의 사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자신의 방법에 호응치 않는 교회를 향해 질타를 퍼붓는다면 교회는 결코 선교단체에게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위의 이원론이나 성서해석의 문제와 같이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 삼게 될 때 교회야말로 이것을 문제삼아 그들을 정리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교회일만 전임봉사(full-time service)할 수 있는 '전임 기독교 사역자(full-time Christian Workers)'의 위치에서 일하게 되므로, 교회의 모든 일을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는 목회자의 신분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그 교회를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데, 대개의 선교단체들은 이러한 구체적 상황의 인식 없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만다. 대개의 경우 교회 밖의 선교단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 교회교육을 받아온 사람이기 보다는 대학시절 교회보다 교회 밖의 움직임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그 곳에서 그들 방식에 따라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이들 중에 진정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일이 주님의 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다시 교회가 요구하는 소정과정의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교육에 알맞는(?) 목회자 훈련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관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맞는 형

식(교리 및 전통)에 따라 이원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서해석의 '관점차'를 일치되게 극복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교회 밖의 입들로만 말하게 하지 말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교회가 교회에게" 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눈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붙잡히 여기는 십자가의 그 피빛같이 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차디차게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신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 있다. 즉 첫사랑의 경험과 같은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실체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될 때 저절로 기쁨의 샘물이 넘쳐 흘러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고 검토해 볼 때,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관(觀)의 문제가 아니라, 영(靈)의 문제"라는 말로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다. 이성적 상황판단에 의한 시각적 관점의 문제 이전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얼마만큼 충만하게 내 안에 소유했느냐를 문제의식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성숙한 믿음의 지식을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 안에 형성해 나갈 것이다.

## 논 평

본 글에서는 80년대부터 한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관 운동을 소위 "교회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간평가하고, 아울러 소위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 운동의 문제점과 한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 세계관 운동이 "극단적 이원론"에 대한 지나친 반발로 가히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친 일원론"으로 기우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전체적인 논리의 정합성이나 성경 해석의 문제는 없으나 다만 한 두 가지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한 예로 저자는 "교회 안", "교회 밖"이란 말을 너무 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자는 여러번 최근의 세계관 운동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맥으로 볼 때, "교회 밖"이라는 말은 예배당의 강단에서 전임 교역자의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인다. 정말 그러하다면 "교회 안", "교회 밖"이란 저자의 용어가 너무 좁게 정의된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현재 세계관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그들이 전임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자는 "만일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외쳐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다윗의 궁정에 들어가 다윗의 숨은 죄를 책망한 다단 선지자의 사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엘리야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한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준다. 또한 "교회 밖의 입들로만 말하게 하지 말고 교회 안의 지도자를 설득하여 교회가 교

회에게 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저자의 지적도 교회란, 곧 교회의 지도자, 좁게 말하면 전임 교역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신학의 근본정신인 "만인 사제주의(벤전 2:9)"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교회의 모든 일을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는 목회자의 신분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그 교회를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데, 대개의 선교단체들은 --- 때문에 교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만다.", "대개의 경우 교회 밖의 선교단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 교회 안에서의 정상적 교회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기보다는 --- 교회 밖의 움직임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그 곳에서 그들 방식에 따라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이들 중에 진정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일이 주님의 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 소정과정의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교육에 알맞는 목회자 훈련을 거치게 될 것이다." 등의 언급들도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고권적이며(첫번째 문장), 영역별 이원론이며(두번째 문장), 교회를 섬기는 은사의 다양성을 부정한다는(세번째 문장)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 편집인 -